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열린 군열, 가능성의 틈

큰 글자·점자 리플릿

한국어



열린 군열, 가능성의 틈

우리의 사이를 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성별, 세대와 언어,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그 모든 경계를 가로질러 이곳에 도착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의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선정된 열 명의 예술가들은 함께 여행을 하고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여정의 짐표이자, 동시에 경계의 여행을 상상해보는 단초입니다.

장애의 경험은 결코 단일한 모습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신체적 조건과 환경에서

비롯된 경험은 세계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감각을 새롭게 열어냅니다. 서로 다른 장애 유형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은 예술이라는 언어를 매개로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가르고 있던 경계를 마주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의 틈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그 틈을 통해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옮기고, 때로는 지워버리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장애예술인 10명은 2025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캐나다 전역을 순회하며, 캐나다의 아츠플레이스, 토론토의 리모트갤러리,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등 주요 장소에서 전시를 마치고 서울의 모두미술공간에 당도했습니다.

전시장 안내

① 김현우

〈픽셀의 놀이터〉

〈그림자 숲향 수학드로잉〉

② 김은설

〈잔상 덩어리〉

③ 유다영

〈시선 (I) - 답장을 쓰지 않은 밤에

꿈에서 보았던 그날의 아침〉

〈시선 (I-1) - 답장을 쓰지 않은 낮에

꿈에서 보았던 그날의 밤〉

〈시선 (n) - 함께 기도하는 상상

〈시선 (I, I-1)을 응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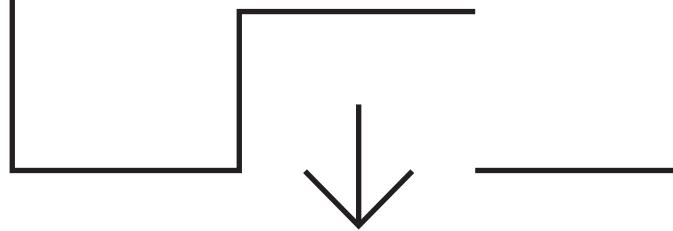
④ 고유선

〈뱀이 들리고 보인다〉

〈담배연기와 함께 있는 이〉

〈20년도 자화상〉

제2 전시실



⑤ ⑥ 아타나스 보즈다로프

〈모래 경사로〉

〈캘거리의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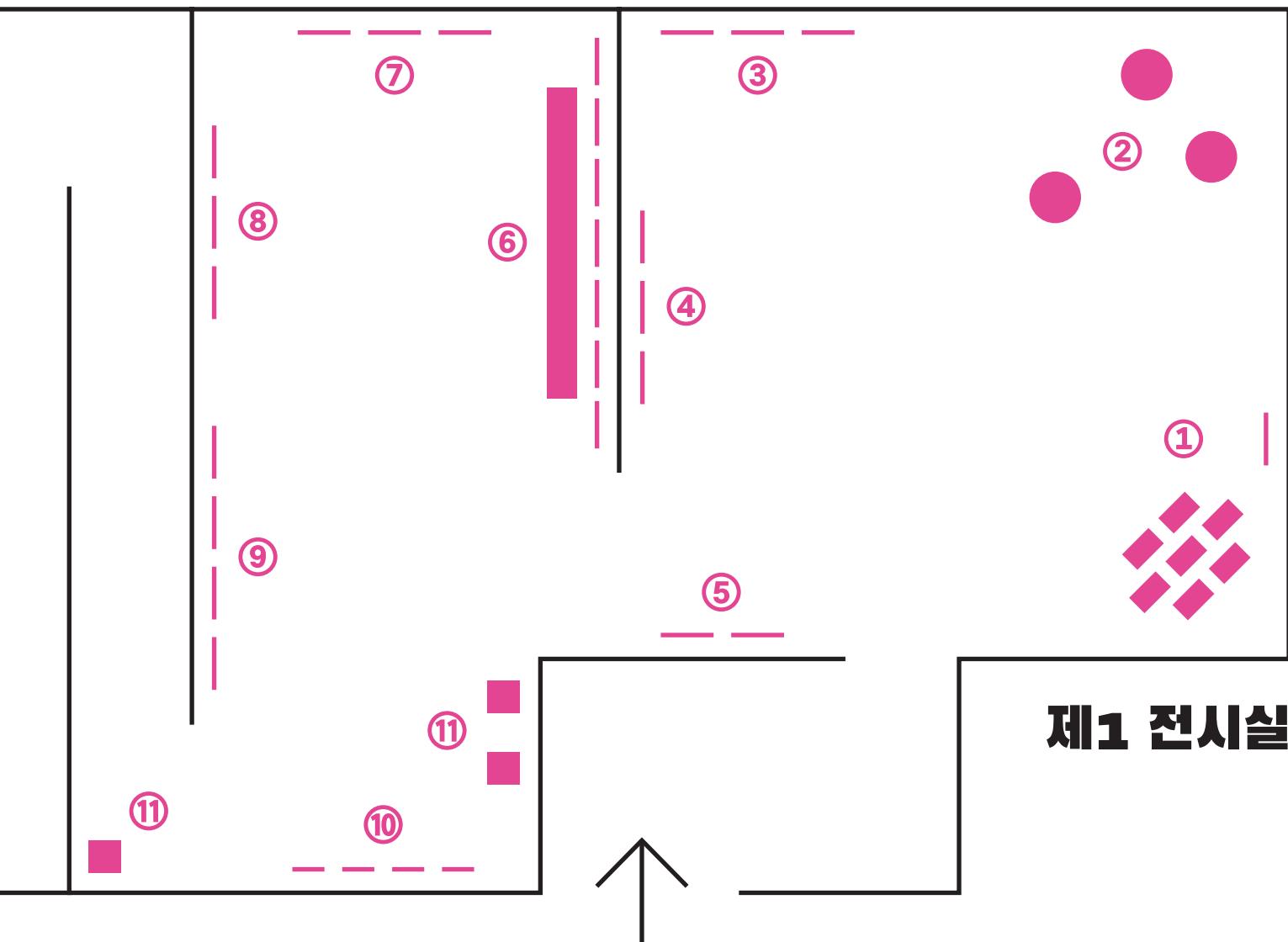
〈나쁜 경사로〉

⑦ 조니 타이

〈내 안의 어린아이〉

〈물고기자리의 속임수〉

〈수탉의 해결책〉



⑧ 로리 M. 랜드리

〈농인의 힘 / 농인주의 선언〉
 〈세이지의 마법〉
 〈대신이 아니라 함께 하기〉

⑨ 데이비드 오퐁

〈홍수마을 4〉
 〈10가지 사실〉
 〈전쟁 2〉
 〈미국 선거 결과 1〉

⑩ 김치형

〈버려진 놀이공원 1.5 - 버려진 레스토랑〉
 〈버려진 놀이공원 2〉
 〈버려진 놀이공원 2.5 - 버려진 모노레일〉
 〈버려진 놀이공원 3 - LOVE CAVE〉

⑪ 메이 챈-롱

〈꼿꼿이 서기〉
 〈긍정적 착각〉
 〈땅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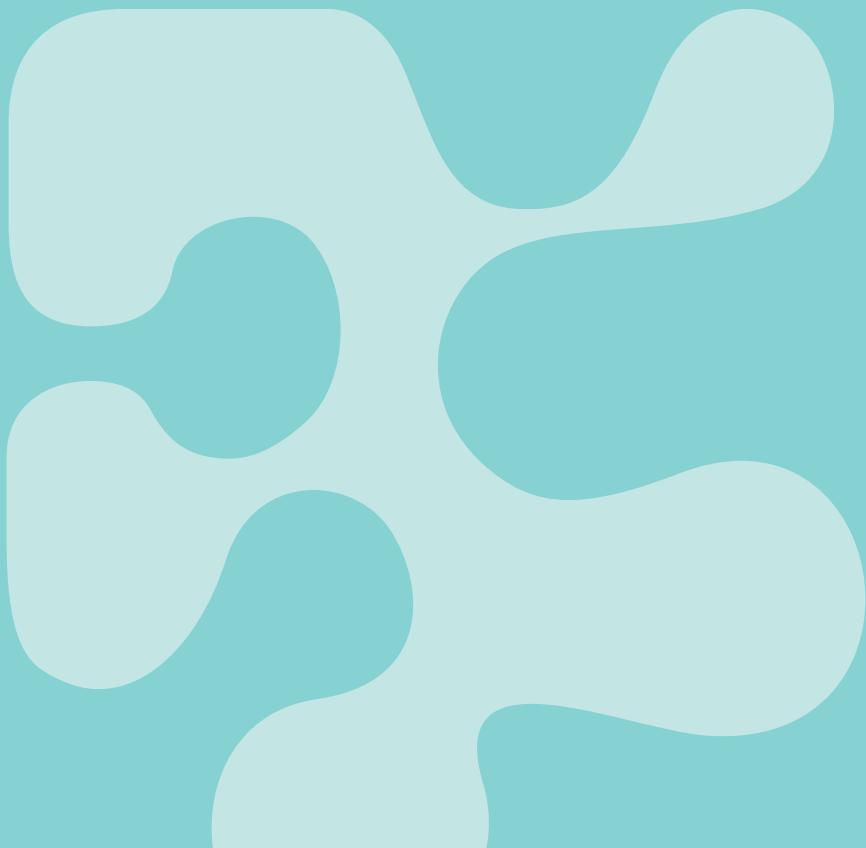
작가·작품 소개





김현우

스스로를 ‘픽셀 김’이라 부르는 김현우는 ‘픽셀’을 기본 조형으로 삼아 특유의 예술세계를 구축한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과 삶의 순간들은 픽셀의 이미지로 재구성되며, 직관적이고 과감한 드로잉으로 구조와 색채의 변주를 펼쳐낸다. 수학 공식이나 직접 작사, 작곡한 악보, 아이패드 드로잉, 친구들과 선생님의 이름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는 등의 문서화 작업을 학창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미디어아트로의 전환 또한 시도하고 있다. 《꿈의 공간과 또는 알람의 시간공간》(아그네스파크 아트스페이스, 거제, 2025)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픽셀의 놀이터

아크릴박스에 PVC, 가변설치, 30×40×15 cm (10),
40×40×40 cm (10), 2024-2025

〈픽셀의 놀이터〉는 아크릴 박스 위에 김현우 작가의
픽셀 드로잉 이미지를 입힌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있는 여러 개의
박스를 자유롭게 옮기고 조합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픽셀을 상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숲향 수학드로잉

캔버스에 혼합재료, 112.1×145.5 cm, 2023

김현우 작가의 〈수학드로잉〉에서는 수학 기호와
수식이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조형 단위로
등장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습관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드로잉 작업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이나 직접 방문하고 보았던 장소와
주제에 대한 기억이 무작위적 수학 기호와 얹히며
새로운 의미의 우주를 펼쳐냅니다.

김은설

김은설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몸과 감각으로 기록하는 작가다. 그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언어와 존재의 본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질문을 던진다. 드로잉,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진동과 울림을 탐구하고, 눈과 피부로 감지하는 소리를 시각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언어를 드러내면서 감각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개인전으로 《중간언어》(탈영역우정국, 서울, 2023) 등을 개최했고 《여기 달은 노래》(아르코미술관, 서울, 2024)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잔상 덩어리

접착제, 진동 스피커, 앰프, 2025

〈잔상 덩어리〉는 물풀을 손에 발라 붙였다가 떼어낼 때, 접착제가 실처럼 끌려 나오며 생긴 가느다란 잔여물을 천천히 감싸 올려 만든 조형물입니다. 이 조각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을 머금은 채 관객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김은설 작가는 어린 시절 몸과 눈으로 체득한 소리의 본질을 바탕으로,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감각적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시각과 촉각, 청각이 중첩되는 감각의 경험을 유도합니다. 관객은 마치 흐릿한 잔상처럼 보이는 이 조형물에 천천히 몸을 맞대며, 촉각적이고 시각적인 소리의 세계로 다가갑니다.

유다영

유다영은 사진과 비디오를 중심으로 작업한다. 그는 카메라 옵스큐라 시스템으로 생성된 사진 이미지를 개인적 서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탐구한다. 최근에는 픽션 형식의 글쓰기 작업을 통해 사진 이미지가 지닌 보편적 시각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전 《점자 이미지에서 파생된 타이포 시와 노래》(팩토리2, 서울, 2023)을 개최하였으며, 수원시립미술관 (2024),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4)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시선 (I) - 답장을 쓰지 않은 밤에 꿈에서 보았던 그날의 아침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6.9×70 cm, 2025

시선 (I-1) - 답장을 쓰지 않은 낮에 꿈에서 보았던 그날의 밤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6.5×49 cm, 2025

시선 (n) - 함께 기도하는 상상

(시선 (I, I-1)을 응시하며)

사진은 조용한 매체입니다. 사진 속 이미지는 영원히 멈춘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유다영 작가의 신작 시리즈는 사진 속의 시선과 그것을 응시하는 시선을 담은 작품입니다. 사진 속 풍경은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고정된 상태로 인해 더 또렷한 이미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의 시선은 방향과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살아 움직이며, 서로의 꿈속에 등장하고, 때로는 서로를 응시합니다.

고유선

고유선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보이지 않는 형체, 뱀의 형상이나 시선의 응시 속에서 드러나는 색채와 문양, 특히 하늘이나 벽면에 나타나는 상징들을 포착한다. 그의 그림은 타인과의 소통과 경험 속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색깔의 인물들과 자연의 모습이 하나의 원을 이루는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된다. 그는 ‘장애’를 세상의 주류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고유한 ‘경험’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원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말하고자 한다. 정신장애 인권 단체 파도손의 단체전 《암호화된 사람들》(마루아트센터, 서울, 2024)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미술 강사로도 활동했다.

뱀이 들리고 보인다

종이에 아크릴릭, 오일 파스텔, 80×110 cm, 2023

작가가 처음 마주한 환시는 뱀이었습니다. 눈을 감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는 여러 빛깔의 뱀이 서로 얹히며 땅리를 튼 형상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뱀을 응시하는 시선은 곧 작가 자신의 표정이자, 동시에 작가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으로 겹쳐집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침없는 붓질의 표현은 내면과 외부의 시선이 교차하며 빛어내는 복합적 감정을 표현합니다.

담배연기와 함께 있는 이

종이에 콘테, 오일 파스텔, 61×47 cm, 2023

작가가 환각을 마주할 때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담배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색색깔의 담배 연기 속에서 또다른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려는 작은 의식처럼 다가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반복 속에서 작가는 환각과 현실 사이의 경계는 잠시 흐려지고, 안정과 위안이 찾아옵니다.

20년도 자화상

종이에 아크릴릭, 오일 파스텔, 80×55 cm, 2020

작가의 질문 :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이루는 색감과 선은 어떤 색인가요?

아타나스 보즈다로프

아타나스 보즈다로프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이다. 그는 조각, 사진, 그래픽 디자인을 결합하여 접근성의 체계, 장애와 디자인의 교차점, 그리고 공공을 위한 건축적 제안을 탐구한다. 경사로를 주제로 하는 조각 시리즈는 디자인을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닌 사유를 위한 수단으로 차용한다. 의도적으로 결합이 있는 디자인, 터무니 없는 재료, 불완전한 구조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방식은 시스템의 실패와 성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즈다로프는 블랙우드 갤러리 (토론토, 2024)에서 개최된 《콰이어트 퍼레이드》, 《라이즈 오버 런》(뉴 블랑쉬, 토론토, 2024)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모래 경사로

알루파널에 디지털 프린트, 61×81 cm (2), 2023-2025

모래로 만든 경사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결에 의해 점차 망가지고 사라집니다. 보즈다로프의 <모래 경사로>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취약하며, 가변적이고 또 조각적일 수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객은 사라지는 경사로를 보면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노동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

캘거리의 경사로

알루파널에 디지털 프린트, 61×81cm (7), 2022-2025

나쁜 경사로

와이어, 단열재, 나무 등 혼합재료, 15×61×81 cm (7), 2019-2025

보즈다로프의 작업은 작가의 개인적인 장애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경사로’라는 상징적인 건축 요소를 조각의 요소로 가져와 단순해 보이는 경사로가 사람들의 이동 방식과 삶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지, 또 건축적 디자인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실천은 장애를 다루는 공적 시스템의 실패가 창의적인 상상력과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성찰되고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니 타이

조니 타이는 대만계 캐나다인으로, 예술가이자 무술 지도자로 활동한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지니고 있음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금속 에칭 작업을 통해 장애, 감각, 문화적 이중성, 그리고 삶의 경험과 힘을 선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기방어 프로그램 ‘나이트 스트라이크’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대표 전시로는 《Neither Here Nor There》(아울렛 갤러리, 포트 코퀴틀람, 2023), 《Amplified Voices》(이탈리아 문화원, 밴쿠버, 2023) 등이 있다.

내 안의 어린아이

알루미늄, 30.4×30.4 cm, 2024

물고기자리의 속임수

알루미늄, 30.4×30.4 cm, 2024

수탉의 해결책

알루미늄, 30.4×30.4 cm, 2024

조니 타이는 손으로 만지면서 제작하는 금속 에칭 작업을 선보입니다. 그의 촉각적인 이미지는 문화적 유대를 통해 넘어설 수 있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삶의 경험과 자기표현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별자리의 교차로〉 시리즈는 동양의 12간지와 서양의 별자리를 소재로 하는 신화, 고대 문명,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한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장애를 지닌 대만계 캐나다 이민자로서 살아온 삶의 경험을 드러냅니다.

로리 M. 랜드리

로리 M. 랜드리는 캐나다 밴쿠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각장애 작가이다. 그는 말하지 않고도 손과 몸을 통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수어의 소통 방식에 특히 큰 흥미를 느끼고 캔버스나 패널 위에 수어를 사용하는 인물들을 그려낸다. 그는 《크램프드》(디스 갤러리, 밴쿠버, 2024), 《Corporealism》(농인문화센터, 토론토, 2024)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동시대 여성 작가들의 구상적 회화를 모은 단체전 《The Audacity of Taking Up Space》(펜틱턴 아트 갤러리, 펜틱턴, 2022)를 기획한 바 있다.

농인의 힘 / 농인주의 선언

캔버스에 유채, 91.4×91.4 cm, 2025

로리 M. 랜드리는 인물 회화를 통해 농인 문화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농인 도상학〉 시리즈는 이미지와 색채로 농인 권력 투쟁의 상징적 의미를 시각화합니다.

‘농인주의 선언 (Manifeste du Surdisme)’은 프랑스에서 시작한 농인 문화예술 운동을 일컬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주파수와 데시벨에 따른 청력 수준을 측정하는 ‘청력도’의 형상을 반영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의 경험을 예술 언어,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으로 뒤바꿉니다.

세이지의 마법

캔버스에 유채, 76.2×91.4 cm, 2023

대신이 아니라 함께 하기

캔버스에 유채, 91.4×76.2 cm, 2022

로리 M. 랜드리는 수어가 지닌 힘과 아름다움을 그려냅니다. 그는 청각장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각장애를 청각의 상실이 아니라 농인의 문화가 지닌 풍부함의 획득으로 해석합니다. 다양한 인물과 몸짓이 등장하는 작가의 초상화 작품 〈세이지의 마법〉과 〈대신이 아니라 함께 하기〉 속 인물은 각각 수어 ‘마법(magic)’과 ‘함께(with)’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퐁

데이비드 오퐁은 가나 아크라 출신으로, 현재 캐나다
앨버타 주 캘거리에서 활동하는 다학제 예술가이다.
영화, TV, 뉴스 미디어에서 영감을 얻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의 교차점을 탐구해 왔다. 그는 회화, 드로잉,
조각, 퍼포먼스,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동시대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감정적
서사를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오퐁은 《리빙 맵》
(컨템퍼러리 캘거리, 2024), 《We're Here, All
Together Still》(스트라이드 갤러리, 캘거리,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홍수마을 4

종이에 아크릴릭, 76.2×101.6 cm, 2021

10가지 사실

종이에 아크릴릭, 45.7×60.9 cm, 2022

탱크와 폭발로 떠들썩한 장면 앞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화와 TV 뉴스 등 미디어로부터 시각적 영감을 얻어 다양한 동시대적 주제를 다루는 데이비드 오풍은 전쟁과 선거, 그에 따른 다각적인 사회 변화를 상상 속 장면에서 묘사합니다. 원색의 강렬한 대비와 즉흥적인 드로잉은 첫눈에 장난처럼 보이면서도, 현실을 조명하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움을 담아냅니다.

전쟁 2

종이에 아크릴릭, 40.6×60.9 cm, 2022

미국 선거 결과 1

종이에 아크릴릭, 45.7×60.9 cm, 2022

김치형

김치형은 어린시절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곤충과 동식물을 직접 보고, 책과 영상에서 신화 속 동물과 화석을 연구하며, 서로 다른 종이나 부위를 합성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그려왔다. 지금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녹아 있는 블랙 코미디에서 영감을 받아 폐허가 된 미래도시, 불안과 혼란의 징후가 가득한 근미래의 공간을 그린다. 0.3mm 펜과 마커라는 단순한 재료만을 사용하여 그로테스크하지만 유머를 잃지 않는 김치형의 세계관은 세밀한 질감을 통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환상의 풍경을 보여준다. 주요 전시로는 《TOUCH & WATCH》(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24),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21) 등이 있다.

버려진 놀이공원 1.5 - 버려진 레스토랑

종이에 마커펜, 45×30 cm, 2024

버려진 놀이공원 2

종이에 마커펜, 45×30 cm, 2024

버려진 놀이공원 2.5 - 버려진 모노레일

종이에 마커펜, 45×30 cm, 2024

버려진 놀이공원 3 - LOVE CAVE

종이에 마커펜, 45×30 cm, 2024

한때 웃음과 빛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괴이한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놀이공원〉 시리즈는 생태계 교란으로 등장한 괴생물체들이 동심의 공간을 잠식해 가는 풍경을 섬세하고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이 풍경들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부유하듯, 동화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 그리고 각 요소들 사이에 흐르는 블랙 유머는 작가 특유의 세계관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가 몰두하는 내면적 세계의 반영을 드러냅니다.

메이 챈-롱

메이 챈-롱은 조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현대 조각과 구상 조각을 넘나드는 듯한 그의 작품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손으로 빚은 강철 위에 재가공한 시멘트와 안료를 겹겹이 쌓아 올린 조각은 제작에 걸린 고된 시간과 삶의 굴곡을 표현한다. 광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가구, 주얼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챈-롱은 벌링턴 워터프론트 조각 트레일,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여러 곳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꿋꿋이 서기

철, 개량 시멘트, 순수 안료, 아크릴릭, 43.1×35.5×60.9 cm, 2024

긍정적 착각

철, 개량 시멘트, 순수 안료, 아크릴릭, 40.6×45.7×30.4 cm, 2024

땅의 힘

철, 개량 시멘트, 순수 안료, 아크릴릭, 46.9×43.1×41.9 cm, 2024

챈-롱의 조각은 언어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적 감정과 경험을 물질로 치환한 결과물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강철을 힘으로 구부리고, 시멘트와 안료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은유적 기록입니다.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고된 제작 과정은 단순한 조형 행위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존재와 그가 감내한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행위로 확장됩니다. 관객은 물성을 통해 작품이 전하는 삶의 굴곡과 그것을 견디는 내면의 힘을 직감하게 됩니다.

열린 균열, 가능성의 틈

2025.11.5.-1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모두미술공간

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캐나다 전국장애인예술센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캐나다문화유산부

협력

캐나다예술위원회,
주한캐나다대사관

참여작가

고유선, 김은설, 김치형,
김현우, 데이비드 오풍,
로리 M. 랜드리, 메이 챈-롱,
아타나스 보즈다로프,
조니 타이, 유다영

전시조성

표표건축사사무소

프로덕션

샴푸

모두미술공간 전시장운영부

총괄 백기영

기획 및 진행 김재연, 박시내

전시지원 및 홍보 정세영

행정지원 하원빈

접근성 매니저 김도영

코디네이터 김해민

모두미술공간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별관 5층

04637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

✉ @moduartspace